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이주배경 학생 및 비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송효준, 김두섭, 함승환
한양대학교

Effects of immigrant residential concentration on student performance: Native versus immigrant pupils

Hyojune Song, Doo-Sub Kim, Seung-Hwan Ham**
Hanyang Universit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Jan 31 2018
Revised Mar 12 2018
Accepted Mar 30 2018

Keywords:

residential segregation of immigrants;
neighborhood effect;
educational disadvantage;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ABSTRACT

The increasing influx of the cross-border migrant population into South Korea gives rise to ethnic enclaves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residential segregation. Drawing on a social disorganization perspective,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level of immigrant residential concentra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upils' academic performance. We also hypothesize that such a negative "neighborhood effect" is mitigated among immigrant pupils vis-à-vis their native peer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multicultural" policies for supporting this minority group over the past decade. The data from the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urvey 2017 were used to examine these hypotheses. Analyses of the academic performance of 1,472 elementary and lower secondary pupils in Seoul and Gyeonggi appeared to give credence to both of these hypothe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ile current multicultural policies work effectively toward the welfare of immigrant pupils, the policy effect is not extended to their native peers, resulting in what might appear as an "unintended disadvantage" to non-immigrant students in neighborhoods of high immigrant concentration.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7S1A3A2065967).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와 한양대 SSK
다문화연구센터 연구진께 감사드립니다.

** Corresponding author, holish@hanyang.ac.kr

I. 서론

한국사회 내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흔히 ‘다문화 학생’으로 불리는 이들이 2017년을 기준으로 초·중등 과정에 전체 학생의 1.9%에 달한다.¹⁾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전국 초등학생의 1.1%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3.1%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지난 10여 년 동안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는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이는 이주배경 학생이 보이는 여러 형태의 학교 부적응 양상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개입 및 행정적 지원을 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교육부, 2017).

여러 국제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이주배경 학생은 비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교육기회에의 접근, 학습의 과정, 학습의 성과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격차를 보이며 교육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15; Schneeweis, 2011). 이주배경 학생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들 역시 이러한 국제적 연구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윤경·이소연, 2009; 이남주·김민, 2017; 이정우, 2013).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대규모 양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이러한 교육격차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²⁾

이 연구는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내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이주민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현상과 관련하여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의 영향이다. 이주민 밀집지역 내에서는 인종·민족적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박효민·김석호·이상림, 2016; 최영신·강석진, 2012).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배경 학생 밀집 학교의 학력저하 현상을 우려하여 비이주배경 학생이 높은 진출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송민섭·김주영, 2017). 이는 이주민 밀집 현상이 교육기회의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거주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와 부적 관계에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여러 선행연구는 지역사회의 생태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주민 밀집거주 현상에 주목하고, 대체로 부정적인 주변효과(neighborhood effects)에 대해 보고

1)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1%를 넘어서면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10년간 이들 부모의 출신국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Kim & Ryu, 2018).

2) 일례로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나 비이주배경 학생과의 비교가 불가능하고,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 가운데 다문화가족 배경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패널 자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이주배경 학생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해 왔다(김두섭, 2014; Madyun & Lee,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민 밀집도가 지역 내 학생의 교육적 경험 측면과 부적 관계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정책결정의 적절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 개입의 요구도나 효과가 이주배경 학생 집단과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 간에 상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주민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교육부, 2017; 류방란,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 주변효과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 집단인 비이주배경 학생에게서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주민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과 함께 이주민의 거주지 분리 현상 또한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주민 거주지 분리 현상의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민 밀집거주 지역과 관련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II. 이주민 밀집도의 주변효과

사회적 맥락 효과를 강조하는 사회생태체계론(socio-ecological systems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환경은 개인에게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개인의 행동이나 인지 및 정서적 특성은 개인을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Bronfenbrenner, 1986; Garcia-Coll et al., 1996). 이주민의 거주지 분리는 이주민의 초기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획득 기회를 약화시켜 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등 주류사회에의 동화나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공존한다(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특히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의 집중적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종, 민족적 균질성 약화와 거주지 분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집합적으로 공유되어 오던 비공식적 사회통제 규범의 약화로 이어져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주변효과를 낳을 수 있다(Sampson & Groves, 1989).

지역사회의 이주민 비율이나 인종·민족적 구성에 따른 주변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 인종·민족적 구성이 다양한 지역일수록 집단 간 분리가 강화되고 교류와 상호작용이 약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Madyun & Lee, 2017). 이는 집단 간 상호 이해를 위한 기회가 제한됨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이나 일탈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Bursik, 1988).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의 역사가 짧은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이주민의 거주지 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박윤환, 2011; 하성규·마강래·안아림, 2011).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의 거주지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것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기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최은진·김의준, 2011). 이들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범죄 및 우발적 범죄의 위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병학·고길곤·김대중, 2013). 또한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지역사회에 같은 민족의 인구가 많을수록 한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적응형태를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김두섭, 2014).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난한 이주민이나 인종·민족적 소수자가 밀집되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사회에서는 학생의 교육경험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Henry, Merten, Plunkett, & Sands, 2008; MacLeod, 2009). 이러한 부정적 주변효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는 사회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프로미스 네이버 후드’(Promise Neighborhoods) 사업이나 캐나다 토론토의 ‘도심지 모델 스쿨’(Model Schools for Inner Cities) 사업 등은 지역 단위의 부정적 주변효과 경감 및 아동의 교육경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사례이다(함승환 외, 2017).

이 연구는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 및 이주민 거주지 분리 현상에 따른 교육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사회해체이론 관점에 기초하여 이주민 밀집의 주변효과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체계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은 비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교육기회에의 접근부터 학습의 과정과 성과를 아우르는 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적 격차가 뚜렷하다. 특히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chneeweis, 2011; Schnepf, 2007).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모든 국가에 걸쳐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문화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된 호주에서는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Cha, Ham, Ku, & Lee, 2017; Chesters, 2015). 이는 개인의 이주배경 지위와 더불어 이들이 거주하는 사회적 맥락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효과의 기제는 환경적·지리적·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복합적인 영향을 포함한다(Galster, 2012). 이

주민 밀집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주민은 한국사회로부터 ‘분리’(segregation) 혹은 ‘주변화’(marginalization)된 유형의 적응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박세훈, 이영아, 2010; Berry, 1987). 또한 이러한 이주민과의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역 내 이주배경 학생뿐만 아니라 비이주배경 학생으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사회·문화적 자본(social and cultural capital)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교육적 경험 및 사회적 발달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주배경 학생이 비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교육적으로 취약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이주배경 학생에게 집중되는 국내의 현 상황은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개입이 이주배경 학생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주변효과는 이러한 정책 효과에 의해 일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접근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Merton, 1936)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공존한다. 이주민 밀집지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자원이 이주배경 학생에게 집중됨으로써 비이주배경 학생은 적절한 교육적 지원으로부터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부적 관계가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부적 관계는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비해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7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수집된 자료로, 서울과 경기 지역 46개 학교(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21개교)의 학생 1,700여명과 같은 학교 교사 470여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조사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우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에 따라 고·중·비밀집 지역의 세 개 권역으로 층화하였다.³⁾ 그리고 각 권역 내에서 초

3) 이 자료는 표집설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2017)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 지역으로 정한 것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 시·군·구

등학교와 중학교를 표집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4학년과 6학년 각 1개 학급, 중학교의 경우 2학년 1개 학급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이와 함께 각 학교 교사 약 10명으로부터 학교 배경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학교의 소재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청의 <e-지방지표>,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의 <다문화 시.군.구 Data Sheet> 등으로부터 취득한 지역 단위 자료를 각 학교의 소재지와 연결하여 추가하였다. 그 결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적 자료가 이 연구를 위해 구축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일부 변수에 결측값이 포함된 사례를 제외한 1,472명의 학생이다.

이 자료는 전국 단위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국내 이주민 인구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다문화 관련 자료가 주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수집되어 온 반면, 이 자료는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아울러,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에 따라 층화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다.⁴⁾

2.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업성취도이며, 독립변수는 학교급, 성별, 이주배경 지위, 학부모 교육수준, 사교육 참여도, 지역의 대졸이상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이주민 밀집도를 포함한다. 각 변수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이 변수는 각 학생이 응답한 자신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취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을 교사가 응답한 학교의 학업성취 수준의 평균값으로 보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수는 두 가지 가정 하에 구성되었다. 첫째, 학생이 응답한 개인의 성취도는 학교 내의 학생 간 편차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가정이다. 둘째, 교사가 응답한 학교의 성취도는 학교 간 편차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에 따라서 학생 응답값을 학교 평균값으로부터의 편차 형태로 계

를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미만인 비밀집지역과 5% 이상인 밀집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밀집지역 가운데 외국인주민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을 고밀집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을 중밀집지역으로 세분화하였다.

4) 이 자료의 수집은 본고의 교신저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수행한 교육부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논문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보고서 내용 일부가 반영되어 있다(함승환 외, 201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jor variables

	<i>n</i>	Mean	SD	Min.	Max.
학업성취도 ⁵⁾	1,472	2.51	1.27	-1.11	5.84
학교급 (초등학생)*	1,472	0.61	...	0.00	1.00
성별 (여학생)*	1,472	0.46	...	0.00	1.00
이주배경 지위 (이주배경 학생)*	1,472	0.13	...	0.00	1.00
학부모 교육수준	1,472	3.81	0.71	1.00	5.00
사교육 참여도	1,472	1.70	1.13	0.00	3.00
지역의 대졸이상 인구비율	1,472	30.61	9.81	12.78	42.60
지역의 재정자립도	1,472	45.35	11.76	26.70	72.20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	1,472	6.48	3.91	1.48	13.92

주: 별표(*)된 변수는 더미변수이며, 따라서 평균은 비율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지위(이주배경 학생=1, 비이주배경 학생=0); 성별(여학생=1, 남학생=0); 학교급(초등학생=1, 중학생=0).

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 간 편차는 교사가 응답한 학교의 성취도 평균값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학교 내 편차와 학교 간 편차를 동시에 고려한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변수는 학교 가중값으로 보정한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인식 점수라는 점에서 실제의 학업성취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가 밀집도에 따른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고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을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양적 자료라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다.

이주배경 지위: 학생과 부모의 출생국가 정보를 토대로 이주배경이 없는 경우(비이주배경 학생) 0의 값을, 학생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의 출생국가가 한국이 아닌 경우(이주배경 학생) 1의 값을 부여하였다.

학부모 교육수준: 아버지(남자 보호자)와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최종학력 중 더 높은 학력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1에서 5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각각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졸업'에 해당한다.

사교육 참여도: 학원이나 과외 등의 형태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각각 1로 코딩 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0에서 3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값이 클수록 개별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과목이 한 과목씩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이 자료는 각 초등학교에서 2개 학급을, 중학교에서 1개 학급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표본 크기가 중학생에 비해 크다. 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서로 다른 표본 크기가 분석결과에 편의(bias)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고.중.비밀집 지역 내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표본의 비율을 동등화하는 가중값을 적용하였다.

지역의 대졸이상 인구비율: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2017) 자료를 활용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만 20세 이상 인구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지역의 재정자립도: 통계청(2017) 자료를 활용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 행정안전부(2017) 자료를 활용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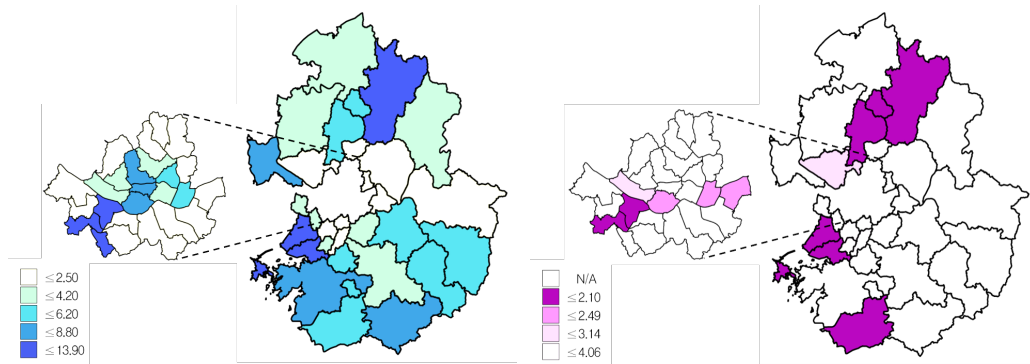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 자료에 포함된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이 61%로 중학생에 비해 표본의 규모가 큰 편이며, 여학생은 46%로 전국 평균 초.중학교 성비(초등학교 48.4%, 중학교 48.0%)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3%로, 표본의 특성상 전체 초.중등 과정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 비율인 1.9%에 비해 높다. 학부모의 교육수준은 평균이 3.81이다. 이 조사 자료에서 3이 '고등학교 졸업', 4가 '대학교 졸업'을 의미하므로 학부모는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는 가장 낮은 지역이 1.48%에서부터 가장 높은 지역이 13.92%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6.48%이다.

IV. 분석결과

1. 지역사회 이주민 밀집도의 주변효과

[Figure 1]과 [Figure 2]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와 학업성취도 사이에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Figure 1]의 짙은 음영)일수록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Figure 2]의 짙은 음영) 현상이 발견된다.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에 따라 고밀집지역(이주민 비율 10% 이상), 중밀집지역(이주민 비율 5-10%), 비밀집지역(이주민 비율 5% 미만)의 학업성취도 평균값을 살펴보면, 각각 고밀집지역 3.34, 중밀집지역 2.20, 비밀집지역 1.82이다.⁶⁾ 이러한 양상은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며 <가설 1>과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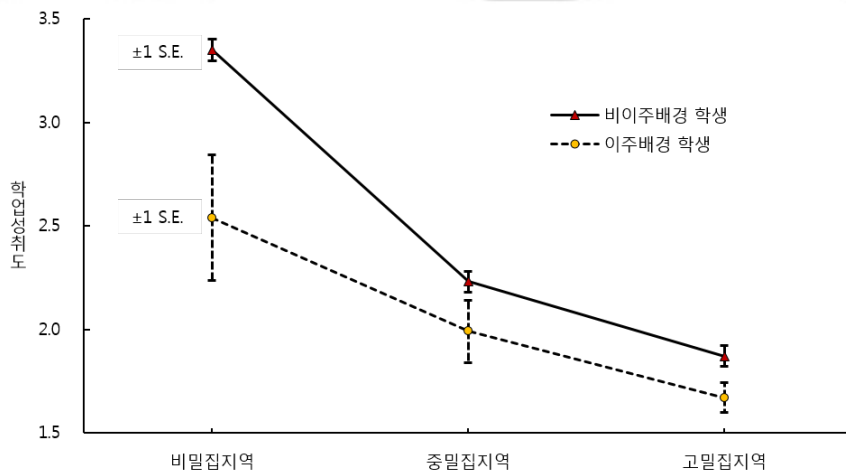
6)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에 활용한 학업성취도는 이 분석 자료에 포함된 46개 초.중학교의 학업성취도 값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급에 따른 학교수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기초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표본의 비율이 동등해지도록 가중값을 부여하였다.



[Figure 1] Percentage of foreign residents in the population [Figure 2] Mean value of pupils' academic performance

2.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주변효과의 차이

학생의 이주배경과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비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관찰된다.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1.82로 비이주배경 학생의 평균값 2.60보다 0.78이 낮다. 이는 전체 학생 학업성취도의 표준편차인 1.27의 약 6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주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음을 나타낸다.



[Figure 3] Mean values of the academic performance of native and immigrant pupils across areas with different levels of immigrant concentration

[Figure 3]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기울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이주배경 학생은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감소하는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하나, 비이주배경 학생은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부적 관계가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비해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이다.

3. 회귀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이주민 밀집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다른 변수들의 값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악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회귀분석은 학력격차를 예측하는 개인 특성과 가정배경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모형 I]), 이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모형 II]).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⁷⁾

우선 [모형 I]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다양한 연구와 일관된 양상이 발견된다.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높아진다. 그리고 지역의 대졸이상 인구비율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배경 학생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0.55만큼 낮다. 이 값은 전체 학업성취도 표준편차인 1.27의 약 43.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주배경에 따른 학생 간의 학력격차 정도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추가로 고려된 [모형 II]의 설명력(R^2)은 그렇지 않은 [모형 I]에 비해 11%p 더 크다. 이는 개인의 학업성취도가 학생 개인 특성 및 가정배경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해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따른 주변효과에 의해서도 체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 II]를 살펴보면, 개인 특성과 가정배경 및 지역사회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

7) <Table 2>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특히 집합수준의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분석 오류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석모형들에서 분산팽창계수(VIF) 값을 계산한 결과, 1.0~1.6 사이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pupils' academic performance

	학업성취도			
	[모형 I]		[모형 II]	
	B	β	B	β
초등학생 (중학생=0)	-.25***	-.10	-.30***	-.12
여학생 (남학생=0)	.09	.03	.08	.03
이주배경 학생 (비이주배경 학생=0)	-.55***	-.14	-.33**	-.08
학부모 교육수준	.42***	.24	.36***	.20
사교육 참여도	.19***	.17	.17***	.16
지역의 대졸이상 인구비율	.03***	.26	.02***	.15
지역의 재정자립도	.01**	.07	.01**	.06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			-.11***	-.35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 × 이주배경 학생			.07*	.05
(회귀상수)	-.64***		.83***	
사례수	1,472		1,472	
R ²	.24		.35	

주: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에서도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1%p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0.11씩 낮아진다. 이 값은 전체 학업성취도 표준편차인 1.27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가령 두 지역 간의 이주민 밀집도가 11.5%p 차이가 날 경우, 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정도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⁸⁾

- 8) 지역의 높은 이주민 밀집도가 학생의 교육경험에 부정적 주변효과를 가져오는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가용한 변수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향후 보다 확장된 범위의 지역수준 변수들을 활용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는 빈곤, 인종·민족적 갈등, 중범죄 발생, 공공시설물 파손, 청소년 비행 등과 대체로 정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김병학·고길곤·김대중, 2013; 박신영·김준형·최막중, 2012; 함승환 외,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지역의 대졸이상 인구비율 및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이주민 밀집도의 부정적 주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내 이주민 밀집지역의 주변효과에 대한 정교한 실증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김두섭·송유진(2013)과 민지선·김두섭(2013) 등이 있으나, 학생의 교육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주배경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에 따른 상호작용항은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07로,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다. 즉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1%p 높아짐에 따라 비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0.11만큼 감소하는 반면에,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0.04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Figure 3]에 제시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격적인 이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밀집지역의 등장 및 급격한 확장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이주민 밀집지역 내 교육력 저하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이주민 유입과 정착 과정이 교육기회의 분배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국내 다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경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행정적 지원은 실질적 요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주민 밀집지역의 학력저하 현상이 이주배경 학생 집단만의 교육 소외 문제로 축소되어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물론 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비이주배경 학생이 학교교육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자본의 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높을수록 비이주배경 학생의 학력저하 현상도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 현실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주변효과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은 이주배경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실질적인 사회적 필요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주민 집단에게 일정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적 정당성이 지지된다.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와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부정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확인된 점은 이주배경 학생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이주민 밀집

지역에 거주하지만 이주배경이 없는 학생들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적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책 대상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적 지원이 특정 이주배경 학생 집단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더라도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은 비슷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한다. 또한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⁹⁾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동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역차별 정서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대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대부분 ‘다문화가족’ 자녀에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성찰이 요구된다. 실제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나 각종 정책학교의 지정 및 운영이 이주민 밀집 지역 내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초점은 이주배경 학생의 지원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 진행 및 제반 여건 구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문화교육지원법 등 새로운 법 제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학생의 이주배경과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에 따른 교육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학생의 교육경험에 부정적 주변효과(neighborhood effect)로 작용할 개연성을 검토하고, 그 효과가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9) 예컨대,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가 해외출생자인지에 따라 다양한 가족 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유형별로 청소년의 흡연과 약물남용(김현식, 2016), 자살 생각과 시도(김현식·김두섭, 2014), 학교 소속감(양정은·함승환, 2018)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나 출산력 등이 출신국, 교육수준, 경제수준, 거주지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한성·이유신, 2013; 유정균·김두섭, 2013), 자녀의 사회통합 경험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개연성이 크다.

지역 1,472명의 학생 조사 자료에 지역사회 변수들을 통합하여 학업성취도의 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이주민 밀집도가 높을수록 뚜렷한 학력저하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러한 부적 관계는 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비이주배경 학생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 밀집도의 부정적 주변효과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 이주배경 학생이라기보다 오히려 비이주배경 학생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주민 밀집지역 내 비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주제어 : 이주민 밀집지역, 주변효과, 교육격차, 다문화정책,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1. 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503&opType=N&boardSeq=70224>에서 2017. 12. 25. 인출.
- [Ministry of Education. (2017, January 13). Announcement of pla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itiatives. Press release. Retrieved December 25, 2017, from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503&opType=N&boardSeq=70224>.]
- 김두섭 (2014).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이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과 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주변효과의 검증. *한국인구학*, 37(1), 1-29.
- [Kim, D.-S. (2014). Effects of ethnic composition of residential area on social activities and adaptation type of foreign wives in Korea: An analysis of neighborhood effec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7(1), 1-29.]
- 김두섭.송유진 (2013). 거주지역 외국인 아내의 비중과 가구구조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주변효과의 검증. *한국인구학*, 36(1), 51-74.
- [Kim, D.-S., & Song, Y.-J. (2013). Effects of ethnic composition and living with in-laws on fertility of foreign wives in Korea: An analysis of neighborhood effec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1), 51-74.]
- 김병학.고길곤.김대중 (2013).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요인의 실제 여부에 관한 연구: 서울 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343-372.
- [Kim, B., Ko, K., & Kim, D. (2013). A Study on foreigner crime and public security threat in expatriates endav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rimes in Guro distric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4(3), 343-372.]
-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Kim, H., & Lee, Y.-S. (2013).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 women: Focusing on social context and social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2), 177-209.]
- 김현식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가족유형에 따른 일탈행위 차이 분석. *한국사회학*, 50(1), 41-74.

- [Kim, H. S. (2016). Differential risks of juvenile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0(1), 41-74.]
- 김현식.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 [Kim, H. S., & Kim, D.-S. (2014).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differential risks of suicid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2), 35-66.]
- 류방란 (2013). 다문화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의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6(4), 131-149.
- [Ryu, B. (2013). A reflect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and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6(4), 131-149.]
- 민지선.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 [Min, J., & Kim, D.-S. (2013). Effects of the residential ethnic composition on the social distance toward foreign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4), 71-94.]
- 박세훈.이영아 (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71-101.
- [Park, S.-H., & Lee, Y.-A. (2010). Spatial agglomeration and politics of place identity of Korean Chinese: A case of Garibongdong.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3(2), 71-101.]
- 박신영.김준형.최막중 (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7(5), 217-230.
- [Park, S.-Y., Kim, J.-H., & Choi, M.-J. (2012). Effects of foreign residential community on Korean neighborhoods: The case of Garibongdong and Daelimdong, Seoul.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7(5), 217-230.]
- 박윤경.이소연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 [Park, Y.-K., & Lee, S.-Y. (2009). Survey on the school live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ergroup differences and intragroup diversit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1), 41-71.]
- 박윤환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103-122.
- [Park, Y. (2011). A study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the poor and foreign population: A case study of Seoul Metropolitan City. *Seoul Studies*, 12(4), 103-122.]
- 박효민.김석호.이상립 (2016).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5(2), 105-138.
- [Park, H., Kim, S., & Lee, S. (2016). Native Koreans'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ethnic enclaves. *Korean Party Studies Review*, 15(2), 105-138.]
- 송민섭.김주영 (2017. 11. 1.). “다문화 아이 많아 싫어요” ... 자녀학교 옮기는 부모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01005397>에서 2017. 12. 25. 인출.
- [Song, M.-S., & Kim, J.-Y. (2017, November 1). “We don't like immigrant-background kids crowded in the classroom” ... Parents transferring their children to other schools. *The Segye Times*. Retrieved December 25, 2017,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01005397>
- 양경은.함승환 (2018). 이주배경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 소속감 격차: 다문화정책에 대한 합의. **사회복지정책**, 45(1), 60-84.
- [Yang, K.-E., & Ham, S.-H. (2018). Ethnic minority children's sense of school belonging: Empirical patterns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Social Welfare Policy*, 45(1), 60-84.]
- 유정균.김두섭 (2013). 혼인이주여성의 상하이동 인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2), 45-67.

- [Ryu, J.-K., & Kim, D.-S. (2013). Effects of perception for upward mobility on fertility among foreign wives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2), 45-67.]
- 이남주.김민 (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10(1), 141-170.
- [Lee, N.-J., & Kim, M. (2017). A narrative inquiry on the school life experience of the immigrated youth of the Koryo-saram.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0(1), 141-170.]
- 이정우 (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 특성. **시민교육연구**, 45(2), 257-291.
- [Lee, J. (2013). An analysis on social studies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background students: Based on the 2011 National Assessment Educational Achievement result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5(2), 257-291.]
- 최영신.강석진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Choi, Y.-S., & Kang, S.-J. (2012). *Oegugin miljibjyegui beomjoewa chiansiltae yeongu* [A study on the foreign crimes in ethnic places in South Korea]. Seoul, South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최은진.김의준 (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도시행정학보**, 24(4), 85-107.
- [Choi, E., & Kim, E. (2011). Residential segregation of the foreign immigrant in Seoul by nationali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4(4), 85-107.]
- 통계청 (2017). **e-지방지표**. 대전: 통계청.
- [Statistics Korea. (2017). *e-jibangjibyo* [Major regional indicators of Korea]. Daejeon, South Korea: Statistics Korea.]
- 하성규.마강래.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91-105.
- [Ha, S.-K., Ma, K.-R., & Ahn, A.-R. (2011). A study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patterns of foreign population in Seoul. *Seoul Studies*, 12(3), 91-105.]
-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Gyoyugtonggyejeonbo*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Jincheon, South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 (2017). **다문화 시.군.구 data sheet**, 2015. 서울: 한양대학교.
- [Center for SSK Multi-cultural Research. (2017). *Damunbwa si-gun-gu data sheet*, 2015 [Multi-cultural shi-gun-gu data sheet, 2015]. Seoul, South Korea: The Center for SSK Multi-cultural Research, Hanyang University.]
- 함승환.차운경.양경은.김부경.송효준.이은지 (2017).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세종: 교육부.
- [Ham, S.-H., Cha, Y.-K., Yang, K.-E., Kim, B.-K., Song, H., & Lee, E.-J. (2017). *Damunbwabagsaeng miljibjyegui gyoyughyeog jegokeul wiban jeongchaeg yeongu* [Education in ethno-cultural communities and policy suggestions]. Sejong, South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행정안전부 (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 행정안전부.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2016nyeon jibangjachidanche oeguginjumin hyeonbuwang*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2016].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Berry, J. W.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 Driedger (Ed.), *Ethnic in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pp. 223-239). Toronto, Canada: Coop, Clark, Pitman.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Bursik, R. J. (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4), 905-923.
- Cha, Y.-K., Ham, S.-H., Ku, H., & Lee, M. (2017). Multicultural policy and ethnolinguistic minority learners' academic engagement. In Y.-K. Cha, J. Gundara, S.-H. Ham, & M. Lee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n global perspectives: Policy and institutionalization* (pp. 169-181). Singapore: Springer.
- Chesters, J. (2015). Does migrant status affect educational achievement, aspirations, and attainment?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7(4), 197-212.
- Galster, G. C. (2012). The mechanism(s) of neighbourhood effect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M. van Ham, D. Manley, N. Bailey, L. Simpson, & D. Maclennan (Eds.), *Neighbourhood effects research: New perspectives* (pp. 22-56).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 Garcia-Coll, C., Lamberty, G., Jenkins, R., McAdoo, H., Crnic, K., Wasik, B., & Garcia, H. (1996). An integrative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competencies in minority children. *Child Development*, 67(5), 1891-1914.
- Kim, D.-S., & Ryu, J. (2018). *Foreign residents in Korea 2017: A statistical handbook in graphics and tables*. Seoul, South Korea: The Center for SSK Multi-cultural Research, Hanyang University.
- MacLeod, J. (2009). *Ain't no makin' it: Aspirations and attainment in a low-income neighborhood*. Boulder, CO: Westview Press.
- Madyun, N., & Lee, M. (2017). Multi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capital and social disorganization: Exploring urb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In Y.-K. Cha, J. Gundara, S.-H. Ham, & M. Lee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n global perspectives: Policy and institutionalization* (pp. 121-134). Singapore: Springer.
- Merton, R. (1936). The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purposive social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894-904.
- OECD (2015). Can the performance gap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 closed? *PISA in Focus*, 53, 1-4.
- Sampson, R., & Groves, W.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 Schneeweis, N. (2011).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ntegration of migra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4(4), 1281-1308.
- Schneepf, S. V. (2007). Immigrants' educational disadvantage: An examination across ten countries and three survey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0(3), 527-545.

김두섭(duskim@hanyang.ac.kr)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The Asian Population Association의 President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및 전공 분야는 혼인이주와 저출산을 포함하는 사회인구학이다.

송효준(ss.hyojune@gmail.com)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다문화교육, 교육리더십, 사회정책 등이다.

함승환(holish@hanyang.ac.kr)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및 다문화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문화사회 친화적 학교조직 및 교육정책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K C I